

해금·가야금...국악기 혼자서도 배울 수 있어요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국악 교재·영상물 '국악 문화학교'

연주법·악보 보기·연습하기
모든 자료 인터넷 무료 제공
대금·아쟁·사물놀이도 준비

고려인 후손 국제국악연수
내일 국악원서 결과 발표회



악기 하나 짚 연주하는 건 많은 이들이 꿈꾸는 일이다. 최근에는 해금 등 국악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늘고 있다. 레슨을 통해 배우는 게 가장 좋겠지만 시간과 비용 등에서 신경써야 할 일이 많다.

독학자를 위한 체계적인 국악 교재가 나와 눈길을 끈다. 진도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상열)이 혼자서도 쉽게 국악기를 배울 수 있는 국악 교육 교재와 영상물 '국악 문화학교'를 선보였다. 특히 모든 자료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새롭게 악기를 배우려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교재는 국립남도국악원 홈페이지(국악연구 카테고리 교육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영상은 홈페이지 국악 아카이브(국악연구 카테고리)나 유튜브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국악원이 준비해온 것으로 이번엔 먼저 출간된 악기는 해금과 가야금이다. 올해 안에 대금, 아쟁, 무용, 사물놀이교재도 펴낼 예정이다.

교재는 악기 바로 알기, 연주법, 악보 보

기, 연습하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영상은 감상용과 연습용으로 나눠 제작했다.

정은경 부산교육대 교수가 펴낸 '해금'은 56페이지 분량에 다양한 자료를 담았다. 악기의 유래, 악기 구조와 명칭, 연주 자세, 기본 운지법의 음높이 등을 소개하며 '비행기', '군밤타령', '꼬마는사람' 등 다양한 연습곡을 실었다. 또 '진도아리랑', '지영희류 짧은 산조', '적남' 등 고급 과정의 곡들도 담아 수준에 맞게 연주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영상물은 '비행기' 등 총 15곡의 연습곡을 분할 화면과 전체 화면으로 담았으며 시연은 남도국악원 이지원 단원이 맡았다.

44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된 '가야금'은 단국대 임미선 교수가 책임 편집을 맡았다. 악기의 구조와 명칭, 조율법 및 구음, 연주법 등에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가야금 연주의 대표적 장르인 '산조' 항목을 따로 정해 산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성금연류 짧은 산조'를 연주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연습곡으로는 '아리랑', '애국가', '군밤타



국립남도국악원 국제국악연수에 참여한 해외 동포들이 6월1일 결과발표회를 앞두고 연습하고 있다.

령' 등을 만날 수 있다. 연주는 국립국악원 김희진 단원이 맡았다.

교재와 영상은 출처를 표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2004년 7월 개원한 국립남도국악원은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여귀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578석 규모의 국악 전용 대극장 진악당과 12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 달빛마당, 120석 규모의 소공연장 별빛마당을 갖추고 있다. 기악단, 성악단, 무용단으로 구성된 국악연주단이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특히 15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사랑채'를 운영하며 매년 해외동포 초청하는 등 다양한 국악 연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는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전통문화예술인 25명을 대상으로 국제국악연수를 진행 중이다. 남도국악원은 오는 6월1일 결과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는 러시아를 비롯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5개국 예술단체 소속 동포들이 참가했다. 대부분 고려인의 후손들로 구성돼 의미를 더한다.

결과발표회에서는 연수생들이 20일 동안 연습한 소고춤·설장고춤·사물놀이·민요 등 5개 장르를 선보일 계획이다.

홈페이지(jindo.gugak.go.kr) 참조. 문의 061-540-403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나는 흰 나리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노래 부른다..."(이은상 작사·박태준 작곡 '동무생각')

3년 전 대구 중구 동산동의 청라 언덕에 선 순간, 학창시절의 음악실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단발머리의 여고생들은 음악선생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아름다운 가사가 인상적인 '동무생각'을 불렀다. 청라 언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인지 노랫말의 무대를 둘러본 감회는 남달랐다. 평일인데도

화반랜드로 자리잡은 '정동야행'(夜行)처럼 낮에 보는 도심의 문화재를 밤에도 개방해 관광 활성화를 꾀한 행사다. 특히 청라 언덕에 설치한 '미디어 스카이'는 하이라이트다. 15m 높이에 걸린 그물망 스크린에서 보는 대구의 인물과 역사 영상은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청라 언덕을 오르는 아노 반주에 맞춰 아름다운 가사가 인상적인 '동무생각'을 불렀다. 청라 언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대구를 찾은 관광객은 2010년 1만여 명에서 지난해 13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2015~16년 연속 한국

광주夜, 놀자

청라 언덕 입구에 세워진 '동무생각' 시비(詩碑) 앞에는 유독 40~50대 중년 여성들의 모습이 많이 띄었다.

청라 언덕에 깃든 애뜻한 러브스토리가 전국에 알려지게 된 건 대구 근대골목투어(골목투어) 덕분이다. 골목투어는 대구 읍성 주변의 1000여 개 골목에 스며있는 1000여 개의 이야기를 발굴해 5개의 코스로 엮어낸 도시생생 프로젝트다. 오랫동안 방치돼온 도심의 근대문화유산을 찾아내 보존하고 이야기를 덧입혀 되살린 것이다.

그중에서 일명 근대문화골목으로 불리는 2코스(1.6km) 구간이 가장 인기가 높다. 2코스의 출발점은 청라 언덕. 청라 언덕의 선교사 주택을 시작으로 3·1운동만세길~계산성당~이상화·서상돈 고택~뽕나무골목~영남대로~진골목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거닐다 보면 그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진다.

뽕나무골목에도 2015년 첫선을 보인 골목투어 달빛야행은 대구관광에 날개를 달아줬다. 서울시의 문

관광 100선에 뽑힌 것도 달빛야행의 후광때문이다.

그렇다고 너무 부러워 하지 마시라. 광주에서도 다음달 9~10일(밤 8시~11시) 이틀간 동구 문화재 일대에서 야행(夜行)사업 '달빛걸음'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문화재청 공모 '2017 문화재 야행(夜行)사업'의 일환으로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곳곳의 문화재들을 야간에 누비는 프로젝트다. 광주읍성 옛터를 기점으로 5·18 민주광장, 지산동 오층석탑으로 이어지는 도보투어, 미디어아트, 체험행사가 광주의 초여름 밤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게 된다. 개막식은 9일 밤 8시 광주읍성 옛터와 5·18 광주민주광장에서 '광주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예술의 거리에서는 고 오지호, 양수아, 허백련 등 지역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거리극 '화가들의 귀환'이 기다린다. 초여름의 길목, 역사와 낭만이 숨쉬는 동구로 '밤 마실'을 떠나보는 건 어떨지.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제 62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 | | | |
|---|----------------------------|-------------------------------|
| 합창 | ▲최고상
1 고대은 외 73명(광주승원초) | ▲동상
8 박서진 외 1명(고실초 외) |
| <심사위원>
김철웅(목포대 교수)
윤영문(전국합창총연합회 부이사장) | ▲은상
2 김주환 외 38명(진안초) | ◇현악 중주 초·중 연합 |
| ◇합창 초등부 | ◇관악 합주 초등부 | ▲은상
1 이강민 외 6명(말레지오주니어앙상블) |
| ▲최고상
1 김명식 외 64명(광주승원초) | ▲금상
1 유휘민 외 43명(하남초) | ◇현악 중주 중·고 연합 |
| ▲금상
2 박현주 외 45명(화산제일초) | ◇관악 합주 중등부 | ▲금상
1 박지원 외 3명(여수예술영재원) |
| 3 유서진 외 42명(화산만연초) | ▲금상
1 이주희 외 36명(석곡중) | ◇관악 중주 초등부 |
| 합주 | ◇현악 합주 초등부 | ▲최고상
2 이혜원 외 8명(유안초 외) |
| <심사위원>
김능학(목포대 교수)
김연주(초당대 교수) | ▲은상
1 박은성 외 9명(현경북초) | ▲금상
1 김희영 외 11명(번암초) |
| ◇관현악 합주 초등부 | 3 김호진 외 6명(불로초) | 3 김민지 외 7명(광주승원초) |
| | 4 이주영 외 7명(광주승원초 외) | 4 오영환 외 3명(번암초) |
| | 5 박시은 외 5명(살레시오초) | 5 김건우 외 5명(광주승원초) |
| | 7 박주연 외 2명(살레시오초) | ◇관현악 중주 초등부 |
| | 1 신노아 외 8명(광주삼육초) | ▲은상 |

'수적천석'...김희동 대금 공연

내일 빛고을국악전수관



대금 연주자 김희동(사진씨)가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목요일국악한마당 무대에 선다. 6월1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김씨는 '수적천석'(水滸穿石)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서 다양한 대금 매력을 전달할 예정이다. 주제는 무슨 일이든 열성을 다하면 꼭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끊임없이 대금을 연마하겠다는 연주자의 의지가 담겨있다.

공연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보유자 조창훈씨를 사사한 녹색 김성진 씨의 가락인 '상령산'으로 무대를 연다.

이어 대금 독주곡 중 최고로 꼽히는 '청성곡'을 선사한다. 청성곡은 가곡(歌曲)을 기악곡화한 변주곡으로, 맑고 청정한 소리를 길게 뿜어내며 절대강자의 협곡을 표현한 곡이다. 또 시조 등 정악 위주 음악으로

들려주고 원장현류 대금 산조를 끝으로 무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씨는 만학도로 전남도립대학에 입학해 대금 연수에 입문하고 전남대학 예술대학 국악과에 편입하며 본격 공부를 시작한다. 국가 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을 이수했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

관람객 2만명 돌파...홀로그램 극장 등 인기

광주문화재단이 지난 3월1일 개관한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이 관람객 2만명(5월 26일 기준)을 돌파했다. 2만번째 관람객은 '영호남 달빛동맹 광주-대구 청소년 문화교류'에 참여한 이우리(대구 동촌중 2년)양이다. 광주문화재단은 홀로그램 극장, 미디어 놀이터, 디지털 갤러리, 미디어

아338,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홀로그램 파사드 등으로 구성된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홀로그램극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EBS에서 방영 중인 '변개맨'을 주인공으로 한 신규 홀로그램 콘텐츠 '변개맨과 먼지괴물'을 추가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